

보도 자료

내부제보실천운동

서울시 중구 동호로 24길 27-17 우리함께빌딩 3층

T. 02)6941-0116

E-mail. gobal2017@naver.com

수 신 : 각 언론사 기자

작 성 일 : 2023년 1월 12일 (목)

보 도 일 시 : **2023년 1월 12일 (목) 즉시**

문 서 번 호 : **230112-1호**

사 무 처 : 서울시 중구 동호로 24길 27-17 우리함께빌딩 3층

문 의 : 내부제보실천운동 사무처 (02-6941-0116)

제 목 : 내부제보실천운동, 제5회 「이문옥 밝은사회상」 수상자 보도요청 건

1. 건강한 사회문화와 언론직필을 실현하기 위하여 헌신하시는 언론사 관계자 및 기자 여러분의 공로에 경의를 표합니다.

2. 내부제보실천운동은 30여명의 내부제보자와 각계 원로, 시민들의 참여로 결성되었으며 여러 시민단체와 함께 반부패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3. 내부제보실천운동은 제5회 「이문옥 밝은사회상」수상자가 선정되어 안내합니다. 자세한 수상 이유는 첨부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문옥 밝은사회상 대상

1. A씨 : 대한불교진각종 고위승려 직장 내 성적 범죄 및 은폐행위 고발
2. B씨 : 머니투데이 직장 내 성적 범죄, 2차 가해 및 갑질행위 고발
3. C씨 : 보호종료아동 케어센터장(長)인 목사의 횡령 및 성폭력 공익제보

* 이문옥 밝은사회상 특별상

1. D씨 : 서울시 모 보육원의 보호대상 아동 인권침해 고발
2. 박창규(JTBC 기자) : 성남시 채용 비리 사건에 대한 보도 및 공익제보자의 권익 보호

* 이문옥 밝은 보도상

1. 양정우(연합뉴스 문화부 차장) : 봉은사 승려 집단폭행 사건 등 종교 및 사회의 부정부패에 대한 지속적인 보도
2. 이호준(KBS 기자) :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에서의 부당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보도 및 공익제보자 권익 보호

* 이문옥 밝은 변호상

1. 류광옥 변호사 : 나눔의집 후원금 불법 유용 및 위안부 피해자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공익제보자의 사건 100여 건을 적극적으로 변호
2. 신선혜 변호사 : 머니투데이와 진각종 직장 내 성적 범죄행위 및 갑질 행위에 대한 공익제보 사건의 문제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변호

* 공로패 및 감사패 전달

1. 이지문님 : 군 부정선거 공익제보 30주년을 축하드리며 민주적이고 공정한 선거제도에 앞장선 용기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담아 공로패 전달
2. 김주언님 : 영원히 꺼지지 않을 언론자유의 횃불이 된 공익제보를 기리기 위해 감사패 전달

4. 시상식은 1월 14일 토요일 16시 장충동 우리함께빌딩 2층 문화살롱 기론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5. 관련 내용을 보내드리오니 언론사 관계자 및 기자 여러분들의 많은 보도 부탁드립니다. 끝.

[붙임 1] 2022 이문옥 밝은사회상 시상식 안내 웹자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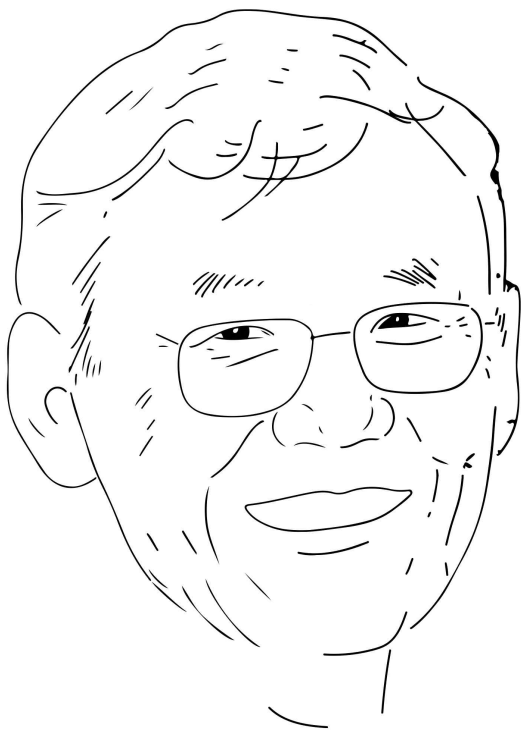
[붙임 2] 이문옥 밝은사회상 수상자 안내

내부제보실천운동

2022 이문옥 밝은사회상 시상식

2023. 1. 14(토) 16:00

청렴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내부제보자들을 위한
이문옥 밝은사회상 시상식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행사개요

우리 사회의 부정부패를 용기있게 고발한 내부제보자들을
위로하고 응원하는 이문옥 밝은사회상 시상식이 열립니다
많은 분들과 함께 감사의 마음을 나누었으면 합니다

행사시간 2023년 1월 14일 토요일 16시
오시는길 서울시 중구 동호로 24길 27-17
우리함께빌딩 2층 문화살롱 기린
지하철 3호선 동대입구역 2번 출구



식순

- 16:00-16:30 인사말 및 축사
- 16:30-17:10 시상 및 감사패 증정
|대상(2팀) | 특별상(2팀)
|보도상(2팀) | 변호상(2팀)
- 17:10-17:50 사진촬영 및 축하공연
- 18:00- 저녁식사



내부제보실천운동
02)6941-0116 | 010-6705-1160

제5회 <이문옥 밝은 사회상> 수상자 선정

A씨(대한불교진각종 고위승려 직장 내 성적 범죄 및 은폐행위 공익제보자),
B씨(머니투데이 직장 내 성적 범죄, 2차 가해 및 갑질행위 공익제보자),
C씨(보호종료아동 케어센터장(長)인 목사의 횡령 및 성폭력 공익제보자)
1월 14일(토) 오후 6시 장충동 우리함께빌딩 2층 문화살롱 기룬 에서 시상 예정

· 심사 기준

- 동기의 순수성이 있는 자
- 제보사항에 본인의 동조,가담 여부
- 새로운 분야에서의 공익제보
- 앞으로 사회적 파급력의 가능성
- 고발 이후 탄압과 이에 대한 피해와 고통
- 다수상자 제외

이문옥 밝은사회상 수상자

이문옥 밝은사회상 대상

1. A씨(대한불교진각종 고위승려 직장 내 성적 범죄 및 은폐행위 공익제보자)

A씨는 불교 주요 종단 중 하나인 대한불교진각종에 2017년 8월, 종무원으로 입사했다. 당시 부서 상사였던 고위승려는 입사 직후부터 2019년 10월까지 2년간 수시로 성적 언행이나 신체 접촉 등이 성적 범죄를 저질렀다. 입사 초기에 상황을 상부에 알려 약 1년간 일시적으로 이러한 행위는 중단되었지만 해당 승려가 승진을 하면서 성적 괴롭힘은 다시 시작되었다. 고통 속에서 A씨는 진각종 수장 통리원장에게까지 문제를 알렸지만 제대로 된 조치는 없었고 오히려 2차, 3차 가해가 시작되었다. 2021년 12월 A씨는 가해자 승려와 진각종단을 고소하였고 SBS에 제보를 했다.

A씨는 성적 괴롭힘과 극심한 2차, 3차 가해로 인해 고통 속에 있었지만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 용기를 내어 사건을 제보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또 다른 상처를 각오하면서 공익제보를 했고, 상처로부터 스스로를 지켜내기 위해 노력했다. A씨의 공익제보는 많은 이에게 용기를 주었고 희망의 불꽃이 되어주었다.

2. B씨(머니투데이 직장 내 성적 범죄, 2차 가해 및 갑질행위 공익제보자)

머니투데이에서 기자로 재직하던 B씨는 직속 상사에게 지속적으로 성추행을 당해왔다. 고통 속에 있던 B씨는 용기를 내 2018년 사내 고충처리위원회에 피해 사실을 알렸다. 하지만 제보 이후 직장 내 갑질이 시작되었고 갑자기 '연구원'으로 발령이 나는 등 노골적인 인사상의 불이익 조치를 받게 되었다. 또한 가해자가 머니투데이그룹 회장과 인척이었기 때문에 약자인 B씨의 심적 고통은 이루 말 할 수 없었다.

그러나 B씨는 가해자 측 및 사측의 2차 가해와 계속된 갑질 행위 등에도 굴하지 않으며 스스로를 지켜냈다. 또한 B씨의 용기 있는 제보는 언론이 본연의 역할을 다하고 성추행과 갑질 행위가 없는 세상을 만들어 갈 수 있는 밑거름이 되었다. 최근 2심 판결에서는 직속상사의 강제추행이 인정되어 5,000만 원의 손해배상이 인정되고, B씨에 대한 사측의 갑질과 업무상의 불이익에 대하여 대표와 법인에 각각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기도 했다. B씨의 용기 있는 공익제보는 많은 이들에게 용기와 희망이 되어주었다.

3 C씨(보호종료아동 케어센터장(長)인 목사의 횡령 및 성폭력 공익제보자)

C씨의 공익제보는 2022년 10월 JTBC에서 보도되었다. 고아들을 대상으로 새로운 가족을 만들어 주겠다는 '보호종료아동을 위한 케어센터'를 운영하는 목사 일당은 기부금 횡령과 보호 아동에 대한 성폭력을 일삼았다. C씨는 이 센터에서 2년간 근무했던 공익제보자이자 성폭행 당사자이다. C씨는 '자신을 떠나면 너가 터져

다시 정신병원에 입원할 것이다.’라는 목사의 가스라이팅에 시달리며 센터를 떠나지 못하다가 ‘다른 피해자 더 이상 생기면 안된다’는 결심으로 공익제보를 시작했다.

C씨의 용기있는 공익제보로 보호종료 아동센터장의 각종 범죄 행위가 폭로되었으며 우리 사회에 아직 인권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점을 보여줌으로써 모두의 경각심을 제고하였다. 또한 상처와 고통 속에서도 스스로를 지켜내기 위해 노력했던 모습은 비슷한 일을 겪었거나 겪고 있는 이들에게 용기와 희망이 되었다.

이문옥 밝은사회상 특별상

1. D씨(서울시 모 보육원의 보호대상 아동 인권침해 고발)

D씨는 서울시의 모 보육원에서 벌어졌던 아동 학대와 보조금 횡령을 서울시청에 신고하고 언론에 제보했다. 제보 이후 직장 내 괴롭힘과 차별 속에서도 퇴사하지 않고 견디며 보호 아동들의 인권을 지키고자 노력하고 있다.

2. 박창규(JTBC 기자)

박창규 기자는 성남시 채용 비리 사건을 지속적으로 보도했다. 불이익 조치를 당하는 공익제보자들을 위해 도움을 주며 권익 보호에 힘썼고, 언론에서 외면받았던 성남시의 다양한 부정부패 사건을 지속적으로 취재하였다.

이문옥 밝은보도상

1. 양정우(연합뉴스 문화부 차장)

양정우 기자는 봉은사 승려 집단폭행 사건 등 종교 및 사회의 부정부패에 대해 지속적으로 보도했다. 특히 종교 권력을 견제하며 투명하고 청렴한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언론에서 주목하지 않는 사건들을 지속적으로 취재했다.

2. 이호준(KBS 기자)

이호준 기자는 반부패, 청렴운동 및 공익신고자를 지원하는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의 공익제보자에 대한 이윤배반적 부당대우를 보도했으며, 공익제보 후 임원들에게 받는 불이익 등 후속피해를 지속적으로 보도했다. 또한 신고자의 신원을 철저히 보호했으며, 신고자에 대한 가해 현황을 자세히 보도했다. 이 과정에서 피신고자는 언론중재위원회에 이호준 기사를 제소하는 등 많은 고초를 겪어야 했다.

이문옥 밝은변호상

1. 류광옥 변호사

2020년 나눔의 집 직원들의 용기 있는 공익제보로 나눔의집 후원금 불법 유용 및 위안부 피해자 인권침해 사건이 세상에 알려졌다. 이후 공익제보자들에 대하여 40여 건에 달하는 고소·고발을 진행되었고, 100여 건에 달하는 형사, 민사, 행정, 신청사건이 발생하였다. 류광옥 변호사는 이러한 100여 건의 사건을 적극적으로 변호했으며 제보자들이 경찰조사가 있을 때마다 수시로 법률 상담을 지원하는 등 공익제보자의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했다. 또한 나눔의 집 정상화를 위한 대내외적인 노력을 공익제보자들과 함께했다.

2. 신선혜 변호사

신선혜 변호사는 머니투데이 직장 내 성적 범죄 행위 및 갑질 사건의 공익제보자와 진각종 직장 내 성적 범죄행위 및 갑질 사건의 공익제보자를 위해 적극적으로 변호했다. 사건의 정당성 확보와 공익제보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힘썼으며, 제보자들이 사회적으로 고립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법률 상담과 조언을 하며 제보자들과 함께했다.